상자속 벌레들

더럽고 질떨어져

교양없고 낭만도 없다

상식도 없이

그냥 싸움만

꽃이 시들기 전에

꽃이 시들기 전에

좀더 있고 싶다

온몸으로

그 향기를 느끼고 싶다

만지면 부러질까

두려워 몸서리치다

혼자 멀리 가버릴까 무서워

조심스레 꼭 움켜쥔다

장미

그는 장미가 너무 좋았다

장미도 그가 좋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장미를 빼앗기기 싫어

단숨에 삼켜버렸다

더 이상 장미는 없고

그에게는 상처만 남았다

운명적 사랑

운명적 사랑은 없다

어디서 누구와 만나

사랑에 빠져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던지

중요하진않다

사랑 그 자체로 아름답다

너의 상냥함이 나에게 상처를 줘

그냥 빨리 말해줬으면

혼자 웃으며 좋아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너의 호의가 나에게 상처가 되어

너를 원망하고 싶은데

나는 남을 원망하며 붙잡을 찌질함이 부족하다

옆에서 봤을 때는 몰랐다

그냥 당연하다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다

너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써 너가 얼마나 찬란한지 느낀다

가면

어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추해

모두가 그를 피했다

그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주길 원해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갔다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멋진

그는 가면 속 그의 추함을 숨기고

사람들과 시간을 나눴다

가면 속 답답함이 있었지만

별로 힘들진 않았기에 꽤 오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아

그의 사랑스러운 소녀가 그에게 돌아와

그에게 멋지다 말한다

안돼

그는 어린 소녀를 속였단 마음에 슬퍼했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집으로 돌아와

가면을 벗으려 했지만

가면은 벗어지지 않았다

그는 다급히 소녀에게 뛰어가

가면을 벗겨달라 청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아저씨의 얼굴이에요

그녀의 상냥한 손이 그를 어루만졌다

이미 가면은 그의 얼굴에 붙어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릇

자신이 다 담지 못할 만큼

모든 걸 담으려 하지 마라

언젠가 그 힘에 못 이겨

부셔져 버릴 테니까

어디부터가 민폐고

어디부터가 집착이고

어디부터가 찌질함이며

어디부터가 허세이며

어디부터가 중이병이며

어디부터가 흑역사인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애정이며

어디까지가 낭만이며

어디까지가 추억으로 남는가

이미 사랑은 없고

행복도 없는데

내일은 왜 올까

노력은 무얼 위해

노력하는 삶은 아름답다

노력하지 않는 삶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럼 삶은 꼭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삶은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가

왜 수십억 사람들 중 이름을 남겨야 하며

왜 남들의 희망이 되어주어야 하는가

또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패배자를 깔보아야 하는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일이

나를 옥죈다

이것은 나의 핑계인가

그럼 핑계이면 어떠하랴

어짜피 책임져줄거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봐?

우리의 뇌와

우주 중

무엇이 더 클까

어렸을 적에는 부끄러워

조금 컸을 때는 핑계를 찾아

더 커졌을 때는 시간에 쫓겨

하지만 이제는 늦은 것 같다

호기심을 따라

늪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되든

너 책임이니 상관없겠지?

Resting Place

Fountainhead of the odor,

Where the water flows,

Smelly, dirty, and unsanitary,

After the day end, I once again go there.

All the anger and madness, craving for heaven.

Once again I release to live.

No one dare to steal a glance at it.

Absolute place to be alone.

So let me to be the God in here.

Water drop after the moment;

The place of emptiness

Only I can hear the sound of the water.

Dropping,

Streaming,

Sound of Music,

Deep breath after the big deal.

It is the dirty palace.

Unclean place to be clean.

So please forget my guilt

That I swallowed everything.

처음에는 나비만 쫓아갔는데

따라가는게 지쳐

결국에는 상냥한 너에게 돌아가는 것 같다

너에게 난 누구였니

귀찮은 존재

너의 우월함을 띄워줄 그저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 중 하나

혹은 그 이하

아니면 만화 속 한 엑스트라 2번정도

무엇이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게 너무 분해

레이싱

모두 열심히 달리고 있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가고 싶어

근데 뒤떨어지면 어쩔까

혹시 낙오되 떨어지면 어쩌지

다들 그냥 달리라고 해

가장 먼저 가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만약 그렇지 못해 이미 한 중간쯤

열심히 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까 그게 두려워

내가 한 노력도 숨긴다

책속에서는 다른 길로 가라하는데

그곳은 목적지가 아닌걸

뒤로 가다 돌이킬수없을정도로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늘은 화창하고

도로를 지나 해가 바다를 빛내고 있는데

왜 그걸 볼 시간은 없을까

저곳에 누어 그냥 바닷바람을 쏘이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다 뒤쳐지면 어떡해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벅차다

Calculus

Is bullying us

History

Of tory

Psychology

Of knowledge

Literature

Let her mature

열정이란 이름아래

초조한 마음을 숨긴다

꿈이란 이름 뒤에

두려움이 꿈틀거린다

우리 좀더 솔직해지자

그 씨발 좀 대단한거

어짜피 너 이야기도 아니잖아

넌 그렇게 내세울게 없어서

너의 선생님을 자랑하니?

너는 나의 반이라도 하고있니?

왜 너의 불안을 나에게 덮으려해

난 단 한번도 남이 부러운적 없다

너희도 나를 부러워할필요없어

각자의 삶에서 가치는

누가 정하겠어

이루어 놓은게 없으면 의미가 없니?

기분좋게 달리고 있는 나에게

돌을 던진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시가 주는 감동은 말로 표한하기 힘들도록 벅차다

내가 살면서 후회한 단 한가지는 시를 더 일찍 쓰지 않은 것이다

가끔 다른 시인의 재능이 부럽다

그러니 나는 더 진심으로 나아간다

청소년기는 꺼지기 직전 불빛 같아서

한없이 위태롭고 흔들린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난다

불태우자

활활 불타라

내가 태운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불타라 밝게

내 모든 것을 쏟는다

다 타고나서 재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게

타올라라

그 무엇보다 밝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기억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붓자

지금 하는 나의 행동이

결코 감동에 의한 충동이 아님을

내가 선택한 삶과 그의 결과임을

인생은 나무

열정은 장작

내 모든 것을 바칠만큼 가치있는가

모든 것을 태울 때 비로소 빛난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어렸을 적 사고 친 후 했던 말이다

그는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좋은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고 넥타이를 메야했을 즘

난 여전히 방황했다

집안은 사회로부터 나를 보호해줬다

그냥 무심코 또 던졌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주름이 생기고 생기가 떨어질 때쯤

한번에 실수로 또 도움이 필요했다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죠?

물론

인간은 원래 실수를 반복하는가

아 추잡한 인간이여

셀 수 없는 세월이 흘렀다

아 볼록 솟은 언덕아래

습관처럼 했던 말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단발머리

미끄러운 목선

우유색 다리 내려가는 곡선

유난히 진한 화장

얇은 옷 속 비치는 브라지에

창백한 손

신발은 만질 때 느껴지는 애태움

감정 해소할 곳이 없어

오늘도 너를 찾는다

나의 희망 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너안엔 아름다운 것만 담고싶어

도서관 옆 블랙카페에 고요한 오후 해가 질 무렵

쿠키 갈아 넣은 푸라푸치노

딱 반달정도의 조명과 함께

우스꽝스럽게 많은 양에 설탕 맛이 났다

오래된 벨기에 과자에선 퀴퀴한 냄새가 난다

달다 목구멍에 얼음이 날 찌른다

이따금씩 생각나는 본적도 없는 그녀

이 조용한 분위기가 숨 막힐 정도로 좋다

증오 섞인 어투로 나를 비난한다

맹목적이지 않고 서투른 것도 아니다

그저 악의로 나를 쏘아붙인다

마치 사냥감을 찾듯 약자를 찾은 것이다

후에 고결한 이름안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겠지

사람은 남에게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

마치 위해준다는 듯 아래로 깔보는 그 얼굴이

내게는 너무도 추했다

그저 불행한 인생속에 뒤틀려 버린 걸까

석탄은 만지면 까매지듯

겉에 있는 것 만으로 모두를 더럽히는구나

\* 남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증오할까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옛날에 돌을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꽁꽁 숨겨놨거늘

어느날 들켜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새끼좀봐 돌을좋아한데

병신인가 왜 돌을 좋아하나

변태인가봐

죽여야되

미친새끼

감옥에 가둔 뒤 영영 돌이나 보고 딸이나 치라지

개새끼

보석을 좋아하던 남들과 달리 돌을 좋아했기에

그는 변태이고 장애이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영원히 추방당해야 한다

남들과 다름은 악이며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다수는 진리이며 소수는 묵살되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다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싸움이다

복숭아

끈적한 여름의 태양빛아래

탐스러운 복숭아가 매달려 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아 조그맣고 부드러운 감촉

불어오는 여름바람에 흔들리는 솜털

하면 안된다는 걸 잘 안다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금단의 열매

조심스레 가지를 꺾어 손에 움켜쥔다

아직 체 자라지 않은 몸집

솜털과 함께 떨리는 살가죽을 조심스레 쓸어내린다

연분홍 빛 피부는 깊숙히 속살을 범하라고 유혹한다

구부러진 곡선 안으로 파고든다

누구도 보지 못한 금단의 구역

이미 다 발가벗겨진 모습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차례차례 범한다

물기 가득한 손으로

속살 깊은 곳까지 널 알고 싶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음을 알았다

금단의 과실

그 결과는 결국 영원한 나락으로 인도한다

* 로리타를 읽고 감명받아서 써봄..

모니터 속에

또 거짓을 이만큼 적는다

또한 정교해지기 위해 다듬는다

언젠가 내가 새운 거짓이 파멸될것을 기도하며

행복하게 사는게 왜 이리 힘이 들까

보이지 않는 시선이 나를 옥죄어

숨막혀 죽이게 하네

게으른 자에게 죽음을!

난 사람을 사랑한 걸까

사랑을 사랑한 걸까

따스한 햇빛이 내리는 오후

나른함에 홀로 생각에 잠겨

너와 손을 잡는 생각을 하지만

도저히 너의 얼굴이 기억이 안난다

그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귀여운 점원의 얼굴이라도

그거 나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굴이 예쁘지도

몸매가 아름답지도 않다

물론 포니테일 뒤에 수줍게 감춰진

목선의 희미한 핏줄과

나를 볼 때 빛나는 큰 눈에

알 수 없게 이끌린 것 같다

당돌한 목소리 뒤에 있던

초조함마저 사랑스럽다

그냥 어느 날 문뜩 그런 생각이 든다

우연히 팔을 스칠 때에도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따듯함이 있다

여자가 좋다

너무 금방 사랑에 빠진다

동시에 또 금방 잊는다

교회 가기 싫을 때에도

이쁜 여자를 생각하고 웃음짓곤 한다

가식이란 가면이 나의 얼굴을 덮고

나조차 속여 감동시킨다

잊혀진 정원 속

나비들이 꽃들 위를 날고

따스한 바람이 귓등을 간지럽힌다

귀여운 소녀가 흔들거리는 그네에 앉아있다

산들바람이 그녀의 고딕 풍 드레스 치마를 살짝 흔든다

사랑스러운 모자를 쓴 그녀의 긴 은발이 그네와 함께 흔들린다

햇빛이 그녀의 커다란 파란 눈 위 짙은 속눈썹을 타고 가냘픈 발목을 비춘다

원피스 속 살짝 비치는 쇄골 위로 떨리는 그녀의 목젖과 함께 울리는 노랫소리

흔들 그네 위 사랑스러운 그녀의 팔과 솜털은 햇빛을 타고 빛난다

치마를 들춰 살짝 보이는 하얀 무릎